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5.18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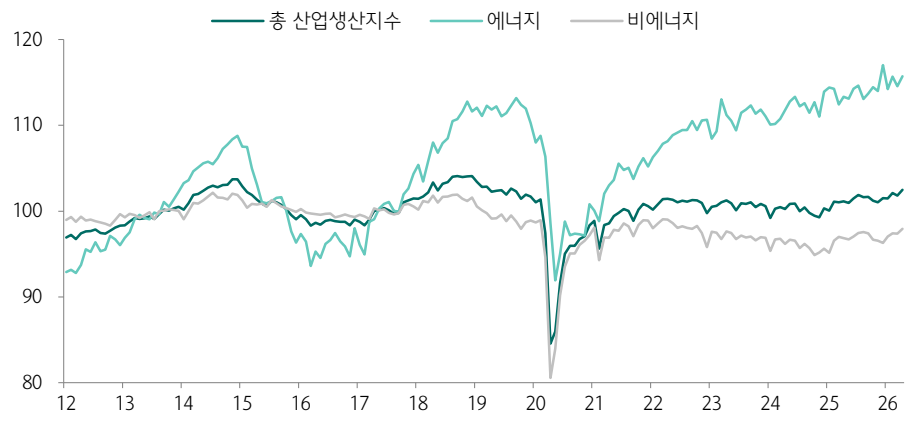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트럼프는 AI를 밀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제조업까지 이끌고 있는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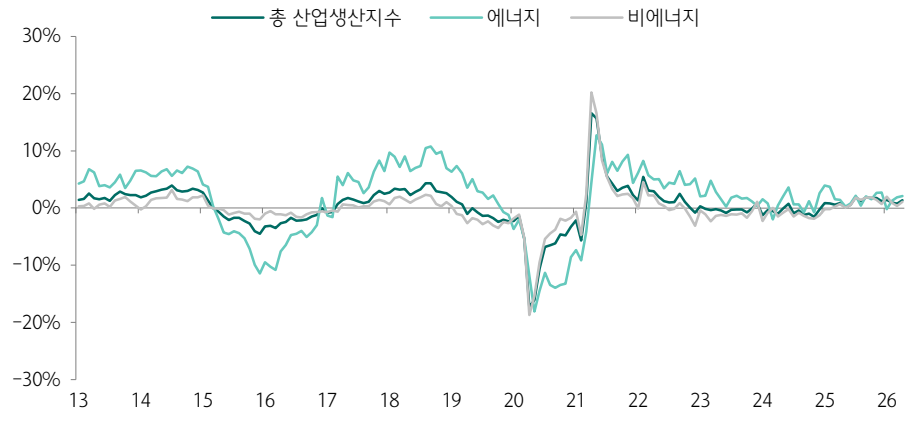
- AI 인프라(반도체, 자동화 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증시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AI는 현재 미국 제조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성장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전통 제조업의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첨단 기술 산업을 제외한 비에너지 산업생산은 정체에 가깝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반도체 등 AI 인프라와 연결된 첨단기술 산업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AI를 단순한 디지털 산업이 아닌 제조업 재편의 수요 엔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현지시각 5월 15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4월 산업생산(MoM)은 +0.7%로 이전치(-0.3%)과 예상치(+0.3%)를 크게 상회했다. 하위 항목별로 에너지 MoM +1% / YoY +2.1%, 비에너지 MoM +0.6% / YoY +1.1%를 기록했다. 비에너지 내 첨단기술 산업은 MoM +1% / YoY +9.2%로 견조했다. 첨단 산업을 제외한 비에너지는 MoM +0.6% / YoY +0.9%에 그쳤다. 에너지 항목이 유가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산업생산 개선을 전통적인 제조업 전반이 아닌 첨단기술 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세부 항목은 강한 AI 투자사이클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4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MoM +1.5% / YoY +14.5%, 통신장비는 MoM +0.6% / YoY +4.8%, 반도체 및 관련부품은 MoM +1% / YoY +9.9% 등을 기록했다. 초대형 기술기업들의 AI를 위한 자본지출이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반도체, 전자부품 등 실제 하드웨어 생산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반도체 및 관련부품의 생산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AI 인프라 사이클이 미국 산업생산 데이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IT 하드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추세로 보면 AI 인프라의 존재감은 훨씬 선명하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가장 일관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로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통신장비는 중간에 조정이 있었지만 회복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관련부품은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강하다. 유틸리티의 강세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2차 시그널이지만, 단일 월 데이터만으로 AI 기여분을 직접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 AI 수요의 질을 보려면 에너지보다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항목이 중요하다.
- AI 인프라 사이클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당분간 접어두는 것이 투자에 유리할 것이다. 일부 항목에서 기저효과와 월별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 급가속 구간이 지나면 YoY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데이터를 감안하면 아직은 사이클 종료를 말하기는 이르다. 피크아웃이라면 현재 주요 항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반도체 및 관련 부품이 동시에 둔화되고, 빅테크의 자본지출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수주도 함께 약해져야 한다. 아직 그런 조합은 확인되지 않는다.
- 현재 미국 산업생산 데이터에서 구조적으로 강한 영역이 AI 인프라 투자와 관계가 깊은 첨단 제조업이란 점에서 미국 정부는 AI 육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행정부 과업 우선순위 맨 위에 AI 패권 장악이 있는 것도 그 증거다. 미국이 되살릴 제조업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 제조업이 아니다.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이다. AI는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요다. AI를 키워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력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투자, 자동화 제조업 확대 등을 동시에 자극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것이다.

도표1. 미국 산업생산지수 및 하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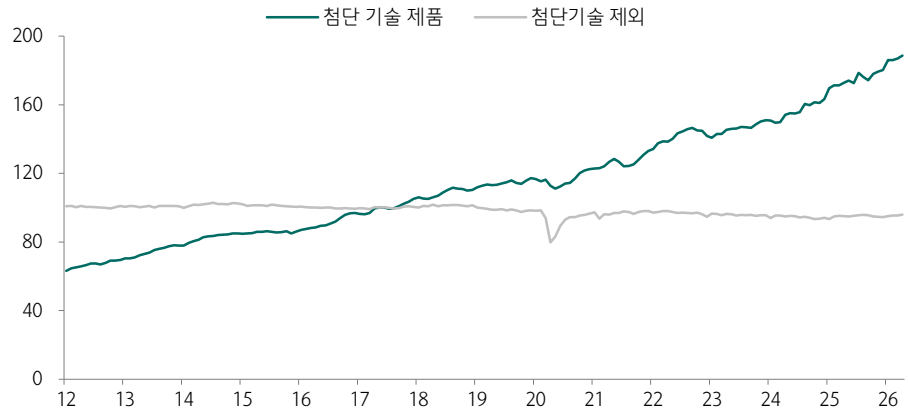
주: 2017 = 100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도표2. 미국 산업생산지수 및 하위 항목(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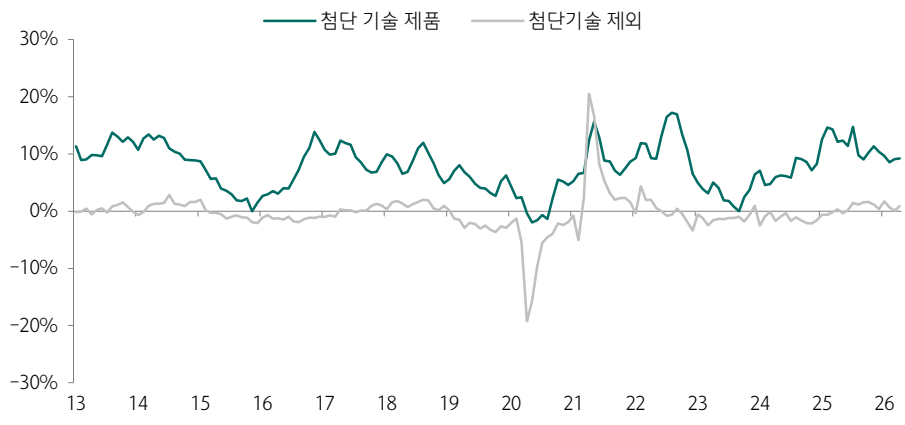
주: 2017 = 100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도표 3. 비에너지 중 첨단 기술 제품 vs. 첨단 기술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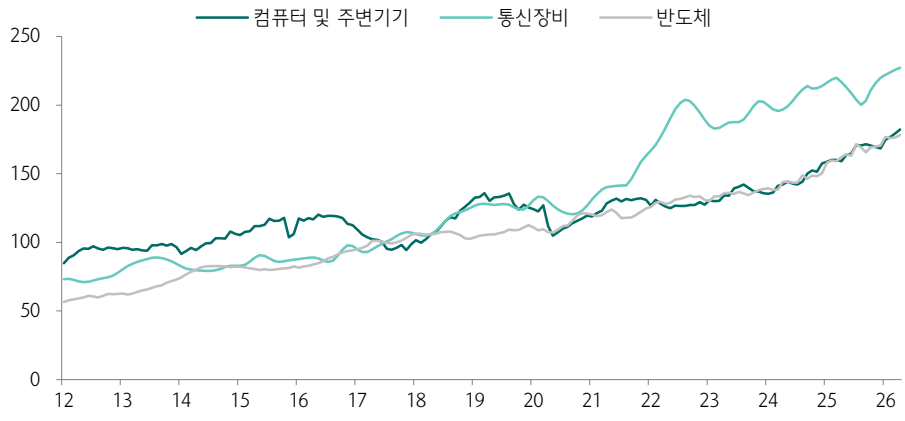
주: 2017 = 100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도표 4. 비에너지 중 첨단 기술 제품(YoY) vs. 첨단 기술 제외(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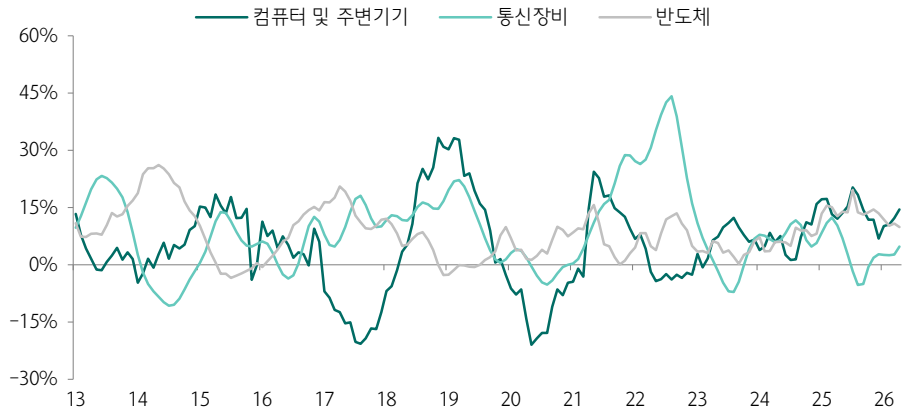
주: 2017 = 100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도표 5. 첨단 기술 제품 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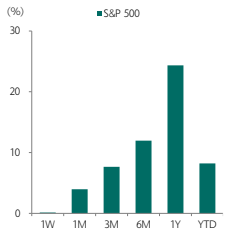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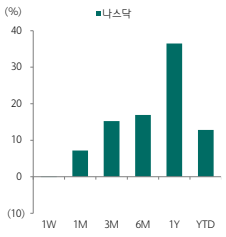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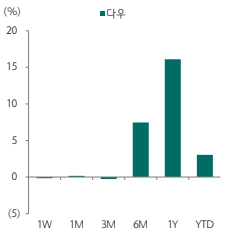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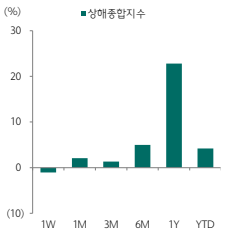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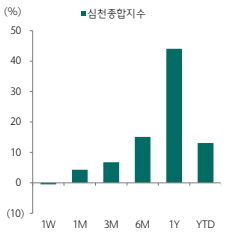
주: 2017 = 100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도표 6. 첨단 기술 제품 항목 비교(YoY)



주: 2017 = 100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408.5	26,225.1	49,526.2	4,135.4	2,861.5
1W (%)	0.1	-0.1	-0.2	-1.1	-0.5
					

주) 5월 15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5월 11일~5월 15일) 리뷰: 인플레이션 우려로 변동성 발생

-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증시에 변동성이 발생했다. 미국증시 3대지수의 수익률은 다우 -0.2%, S&P 500 +0.1%, 나스닥 -0.1%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3%,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2.4% 하락했다. 변동성지수(VIX)는 7.2% 급등했다. 증시 변동성이 있었지만 증시참여자들은 대형 성장주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로 구성된 ETF(VTV)의 수익률은 각각 +0.7%, -0.2%다.
-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WTI는 105.4 달러로 한 주 동안 10.5% 상승했고, Brent는 109.3 달러로 7.9% 올랐다. 지난주 물가와 관련된 지표 2개가 발표됐다. 4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YoY +0.4%, MoM +0.6%였다. YoY는 예상치(+3.7%)와 이전치(+3.3%)를 상회했으나, MoM은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0.9%)보다 낮았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YoY +2.8%, MoM +0.4%였다. YoY 및 MoM 둘 다 예상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지만, 주거비 왜곡이 다소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참여자들의 걱정을 다소 자극했다. 4월 헤드라인 PPI는 YoY +6%로 예상치(+4.9%)와 이전치(+4.3%)을 크게 상회했다. MoM도 +1.4%로 예상치(+0.5%)와 전월치(0.7%)보다 높았다.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 YoY는 +4.4%로 이전 발표치(+3.7%)를 상회했고, MoM은 0.6%로 전월 발표치(0.2%)보다 강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다음날 발표한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는 5.046%였다(이전치 4.876%). 장기금리가 주식 밸류에이션, 부동산, 정부 이자 비용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 30년물 금리엔 높아진 유가로 인해 기대인플레이션이 강해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물가 상승 재가속 우려, PPI의 CPI 전가 가능성,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 장기채 기간프리미엄 상승 등이 결합됐을 것이다. 주식시장엔 할인율(요구수익률) 부담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크다.
- 상승한 섹터는 에너지(+6.8%), 필수소비재(+1.2%), 정보기술(+1.2%), 헬스케어(+1%) 등이다. 에너지는 유가상승이 주요 모멘텀이다. 정보기술은 M7 가운데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이 긍정적이었다. 필수소비재와 헬스케어는 방어적 성격이 부각됐다. 경기소비재와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산업재는 각각 3.1%, 2.6%, 2.3%, 2.1%, 1.1% 하락했다. 모두 금리에 취약한 산업이다. 경기소비재는 소비 위축 우려도 반영됐을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은 M7을 비M7보다 선호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0.3% 상승했지만, 비M7 ETF(XMAG)는 0.1% 하락했다. M7 중에선 마이크로소프트(+1.6%), 엔비디아(+4.7%), 애플(+2.4%), 메타(+0.8%) 등이 상승했다(알파벳 -1%, 테슬라 -1.4%, 아마존 -3.1% 등). 엔비디아는 미국의 중국 H200 판매 승인 발표가 긍정적인 모멘텀이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 약 10곳에 엔비디아의 H200 구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다. 승인 대상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JD닷컴 등 주요 중국 빅테크가 포함됐다. 중국에 H200 판매가 본격 재개될 경우 엔비디아 실적엔 긍정적이다.

≫ 이번 주(5월 18일~5월 22일) 프리뷰: 엔비디아 실적발표, 높은 금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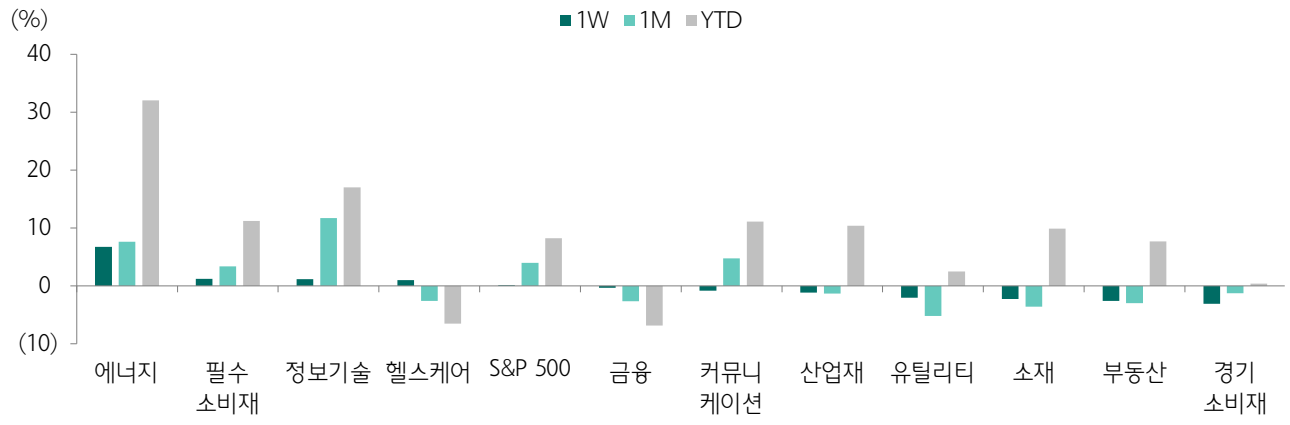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전 세계 국채 금리의 변동성일 것이다
- 지난주 금요일 증시 변동성을 야기한 것은 전 세계 국채금리다. 시작은 일본 금리였을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 채권 매도세가 강했다. 일본국채 10년물 금리는 8일 2.478%에서 15일 2.706%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BOJ는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한 견해를 표시했다. 인건비와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기업들이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2026년 가격 인상폭을 전년보다 완화하려고 했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야기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상황이 변했다고 한다. 가격 인상 시기는 여름철 이후를 검토하는 곳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건비도 문제다. 임금 인상과 최저 임금 상승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 일본 금리 상승엔 미국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했다. 베센트 장관은 예전부터 일본의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통화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입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작년 8월과 10월에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엔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발언했다.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가장 명시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10월엔 금리 인상 여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방문에선 우회적으로 엔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BOJ 총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뒤쳐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잘 이끌것이라고 했다. 8월 이후 일관되게 엔화 약세 문제는 환율 시장 개입보다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미국은 공식적으로 강달러 정책을 표명하고 있으나, 과한 달러 강세는 불편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및 무역 정책의 목표는 제조업 회귀, 수출 확대, 무역적자 축소다. 달러 강세는 미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수입품은 싸져서 무역적자 축소에 불리하다. 미국 정부는 상대국이 낮은 금리나 정책으로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엔화 약세의 원인을 고금리인 미국과 저금리인 일본의 금리차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도 엔화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는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바랄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은 현지시각 20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과 전망치에도 주목할 것이다.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호실적과 견조한 예상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엔비디아의 GB 계열 인공지능 서버 및 랙 생산에 관여하는 대만 주요 기업인 위스트론, 홍하이(폭스콘), 콴타 등이 양호한 월 매출을 발표하고 있다. 세 회사의 2026년 1분기 매출합은 3조 7,851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위스트론은 YoY +144.3%, 홍하이는 YoY +29.7%, 콴타컴퓨터는 YoY +66.6%다. 4월 매출도 위스트론 YoY +112%, 홍하이 YoY +29.7%, 콴타컴퓨터 YoY +120.7%다.
- 홍하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4월 매출이라고 했다. 클라우드 및 네트워킹 제품 덕분이다. AI 제품 수요가 강력하다. 고객들은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블랙웰 플랫폼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분기에도 수요 강세는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분기는 ICT 산업의 전통적인 비수기지만, AI 랙의 매출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AI 랙 출하 덕분에 계절적 약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YoY 및 QoQ 성장을 전망했다.
- 시장참여자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중국향 제품 판매에 대해 가늠해보려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지만 중국 기업이 수입한 것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H200은 성숙단계의 제품이다. 판매가 재개되면 엔비디아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 신제품 베라루빈 양산 초반이라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양산 진행중인 블랙웰이 이익을 방어하겠으나, H200 판매가 본격화되면 빠르게 이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는 19일 ADP 주간 고용 변화, 4월 잠정주택판매(MoM, 이전치 +1.5%), 20일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46%) /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4.306M), 21일 5월 필라델피에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이전치 26.7)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211K) / 4월 건축 허가(이전치 1.363M) / 4월 주택 착공(이전치 1.502M) /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이전치 54.5) / 5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이전치 51) / 2분기 애틀랜타 연은 GDPNow(예상치 4.0%, 이전치 4.0%), 22일 4월 미국 선행지수(MoM, 이전치 -0.6%) /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예상치 48.2, 이전치 48.2) / 5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예상치 48.5, 이전치 48.5) / 5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예상치 4.5%, 이전치 4.5%) / 5월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예상치 3.4%, 이전치 3.4%)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19일 월러 연준이사(비둘기, 투표권 있음), 20일 바 연준 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22일 월러 연준이사(비둘기,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19일 HD / KEYS / BEKE / AS / ZTO / CAVA, 20일 NVDA / ADI / TJX / LOW / INTU / TGT / HAS / GLNG / IMVT / ELF / ZIM / ALMS / RLX, 21일 WMT / DE / NTES / ROST / TTWO / WDAY / CPRT / ZM / RL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5/15)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408.5	-1.2	0.1	4.0	7.7	12.0	24.3	8.2
나스닥	미국	26,225.1	-1.5	-0.1	7.2	15.3	16.9	36.5	12.8
다우	미국	49,526.2	-1.1	-0.2	0.2	-0.3	7.5	16.1	3.0
STOXX600	유럽	606.9	-1.5	-0.9	-3.1	-3.5	8.0	10.5	2.5
KOSPI	한국	7,493.2	-6.1	-0.1	21.0	36.1	89.5	185.3	77.8
KOSDAQ	한국	1,129.8	-5.1	-6.5	-3.4	2.1	28.6	55.8	22.1
상해종합지수	중국	4,135.4	-1.0	-1.1	2.1	1.3	5.0	22.8	4.2
심천종합지수	중국	2,861.5	-0.9	-0.5	4.3	6.8	15.1	44.0	13.1
항테크지수	홍콩	25,962.7	-1.6	-1.6	-0.8	-2.8	0.1	11.2	1.3
TOPIX	일본	3,864.0	-0.4	0.9	2.7	1.5	18.9	41.0	13.3
니케이 225	일본	61,409.3	-2.0	-2.1	5.0	7.5	26.1	62.7	22.0
니프티 50	인도	23,643.5	-0.2	-2.2	-2.9	-8.4	-8.7	-5.5	-9.5
Vietnam	베트남	1,921.6	-0.2	0.3	5.7	5.3	15.8	47.7	7.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5.1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이란 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지속되며 유가 급등, 에너지 기업 주가도 동반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경기 소비재: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 이어지며 금리 민감 섹터 약세, 소비 위축 우려도 반영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5/11	**미·이란 종전 협상 난항, 트럼프 "이란 답변 전적으로 용납 불가"** •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수신한 종전 협상 답변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미국이 제시한 14개 조항 MOU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선해제 후 호르무즈 상선 통항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이후 30일간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봉쇄 해제 전 핵 문제 선결을 요구해온 입장이어서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이란군 대변인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량 잠수함을 해협에 처음 배치했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
5/11	**골드만삭스 "S&P500 기업, AI 투자 확대로 자사주 매입 줄인다"** • 골드만삭스가 AI 투자 열풍으로 S&P500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자사주 매입에서 설비투자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 올해 S&P500 기업 설비투자는 33% 증가하는 반면 자사주 매입은 3% 증가에 그칠 전망. 1분기 기준으로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39%인 반면 자사주 매입은 1% 증가에 불과. 특히 아마존·구글·메타·MS·오라클 등 AI 하이퍼스케일러 5개사는 올해 설비투자를 YoY +83%인 7,550억 달러로 확대할 전망으로, 영업 현금흐름의 100%에 달하는 수준. 현재 이들 기업의 전체 현금 지출 중 자사주 매입 비중은 15%로 2017~2022년 평균(27%)을 크게 하회.
5/12	**미국 4월 CPI YoY +3.8% – 2023년 이후 최고치, 에너지 급등이 주도** • 미 노동부, 4월 CPI가 YoY +3.8%, MoM +0.6%로 시장 예상치(3.7%)를 소폭 상회했다고 발표. 에너지 가격이 YoY +18% 급등하며 월간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휘발유(+28%)·난방유(+54%) 가격이 특히 큰 폭으로 상승. 근원 CPI도 YoY +2.8%로 예상치(2.7%)를 상회하며 전월(2.6%)보다 확대. RSM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며 연내 CPI 4% 도달 가능성을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대응책으로 연방 휘발유세 한시 중단을 지지한다고 밝힘.
5/13	**구글·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위한 로켓 발사 계약 협상 중** • WSJ에 따르면 구글이 지구 궤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을 논의 중. 구글은 스페이스X 지분 6.1%를 보유한 초기 투자자로, 지난해 '프로젝트 선캐처'를 발표하며 2027년까지 시제품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앤트로픽도 지난 6일 스페이스X 데이터센터 임차 계약을 발표하며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빅테크의 우주 인프라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사선·유지보수·발열 관리 등 기술적 난제 극복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
5/14	**미국 4월 수입물가 MoM +1.9%. 시장 예상치 2배, 4년여 만에 최고** • 미 노동부, 4월 수입물가가 MoM +1.9%, YoY +4.2%로 시장 예상치(+1.0%)를 2배 상회하며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연료·윤활유 수입물가가 MoM +16.3% 급등하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으며, 수입 원유·석유 제품은 +19.0% 급등. 수출물가도 MoM +3.3%, YoY +8.8%로 시장 예상치(+1.1%)를 큰 폭 상회하며 2022년 이후 최고치 기록.
5/14	**미국, 中 기업에 엔비디아 H200 구매 허가했지만 중국 당국 제동으로 납품 無** • 미 상무부가 알리바바·텐센트·바이트댄스·JD닷컴 등 중국 기업 약 10곳에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허가했으나,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구매 자제를 독려하면서 실제 납품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로이터가 보도. 중국은 백도어 장착 등 보안 우려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방해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중 정상회담 방중 일정에 합류하면서 거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H200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구조도 도입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한 것으로 전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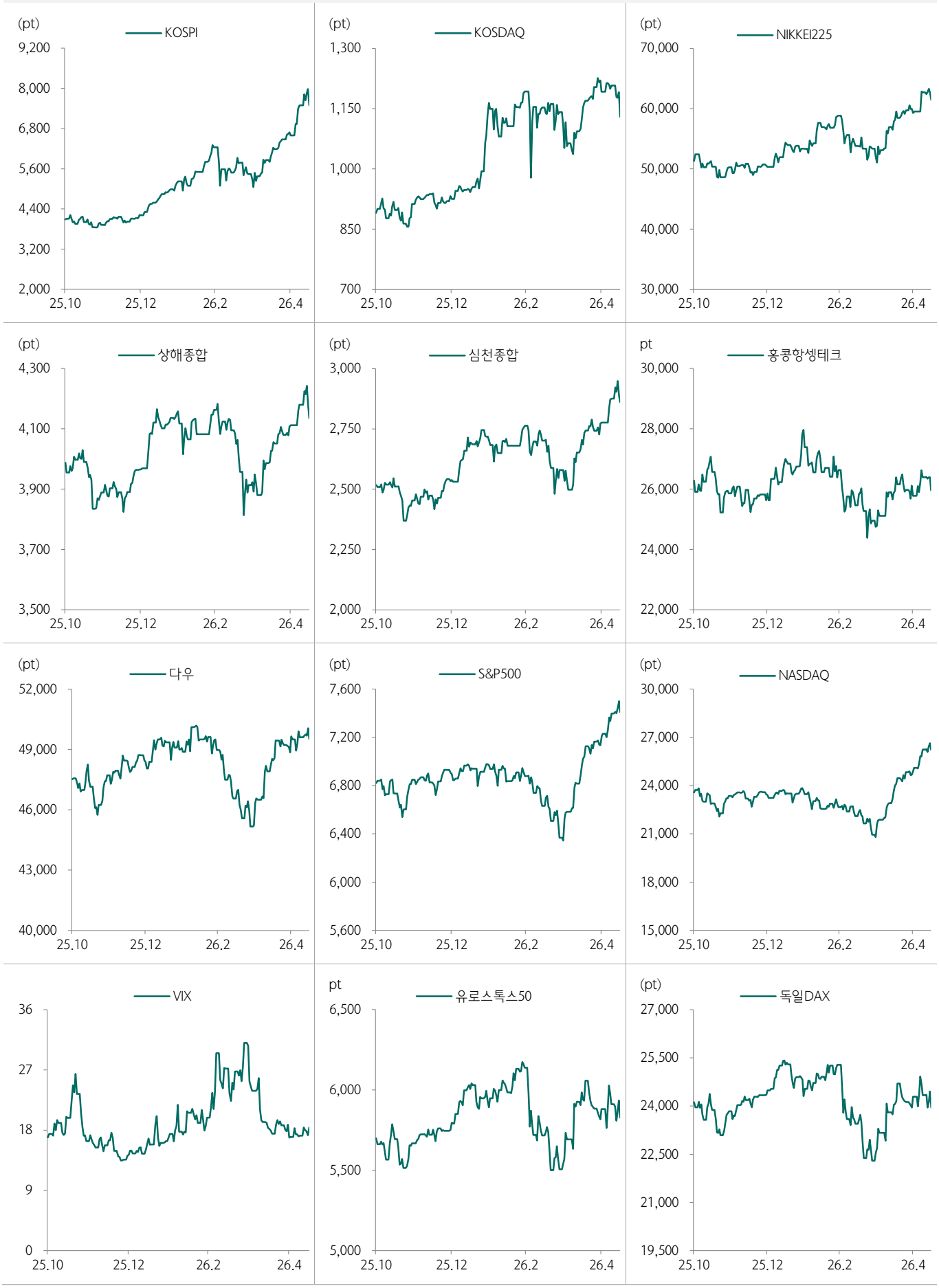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5월)

월	화	수	목	금
				1
				XOM CVX LIN CL AON D EL MRNA
4	5	6	7	8
PLTR VRTX WMB ON CQP FN BWXT STRL GRAB POWL AES	AMD ANET SHOP ETN PFE BUD DUK KKR CMI EMR EOG LITE	ARM NVO DIS APP UBER CVS JCI MAR DASH COHR O CGNX	MCD GILD MCK CNQ HWM MELI ABNB NET CRWV LNG DDOG SATS	TM ENB FLR AU
11	12	13	14	15
CEG SPG FOX STE CRCL MOS ASTS PLUG ACM HALO GPRO	VG NXT EXPD ZBRA OKLO CELH ARMK ODD TME QXO LCTX CAMT	CSCO BABA NBIS DT DOCS STUB MSGE	AMAT ROST BN NGG NU VIK FIG	RLX MGTI RBC
18	19	20	21	22
GRTI ONDS IQ BTDR	HD KEYS SE LUNR	NVDA ADI TJX LOW SNPS TGT HAS INTU GLNG ELF ZIM	WMT DE MRVL CRPT TTWO WDAY DG DLTR DECK GAP BULL BBW	BAH BKE EU
25	26	27	28	29
NAT SBR API MOB	PANW SKY IVA	SNOW A WSM DKS BBY M ANF AAP	RY DELL ZS MDB LULU OKTA	FRO CGC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5/19(화)	• 4월 잠정주택매매 (MoM 이전 1.5%) • 5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5/20(수)	• FOMC 4월 의사록 공개
5/21(목)	•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이전 26.7) •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4.5) • 5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1.0) • 4월 주택착공건수, 건축승인건수[P] (이전 1.502M, 1.363M)
5/22(금)	• 5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전 4.5%) • 5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심리지수 (이전 48.5/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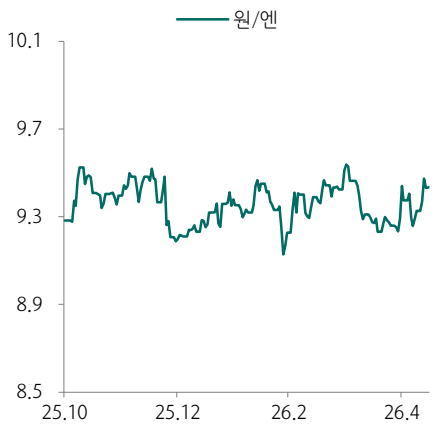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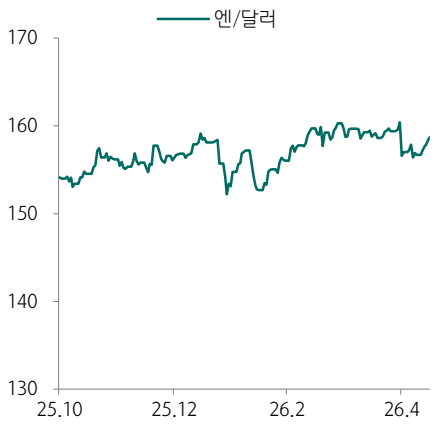

(pt)
KOSPI
9,200
8,000
6,800
5,600
4,400
3,200
2,000
25.10
25.12
26.2
26.4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pt)
S&P500
7,600
7,200
6,800
6,400
6,000
5,600
(pt)
NASDAQ
30,000
27,000
24,000
21,000
18,000
15,000
VIX
36
27
18
9
0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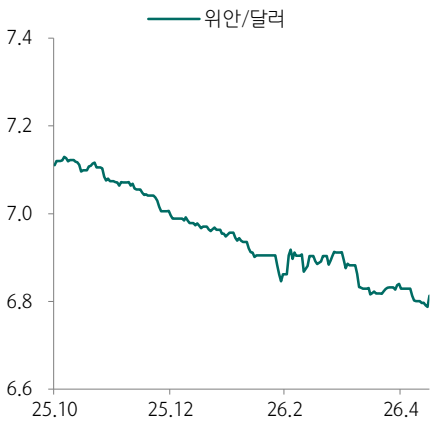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10
25.12
26.2
26.4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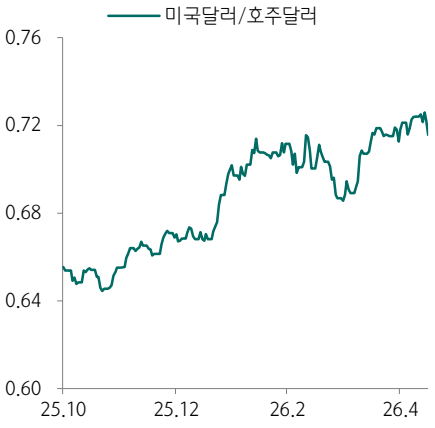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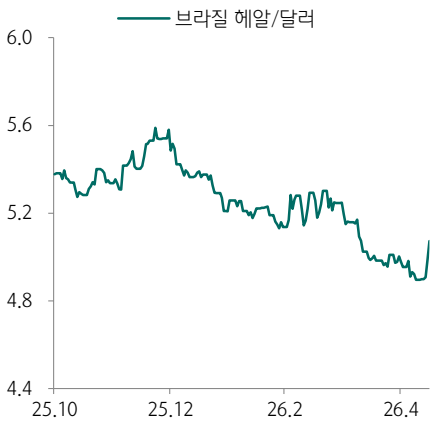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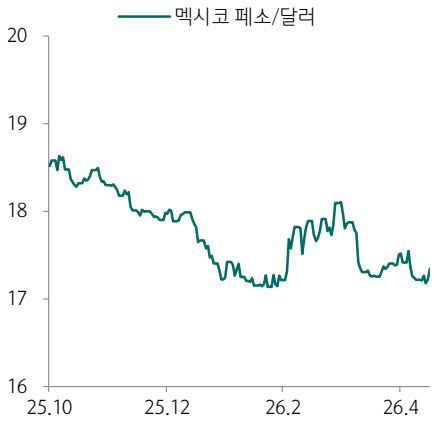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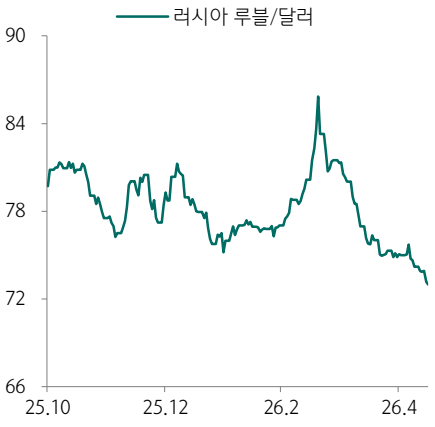

위안/달러
7.4
7.2
7.0
6.8
6.6
25.10
25.12
26.2
26.4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10
25.12
26.2
26.4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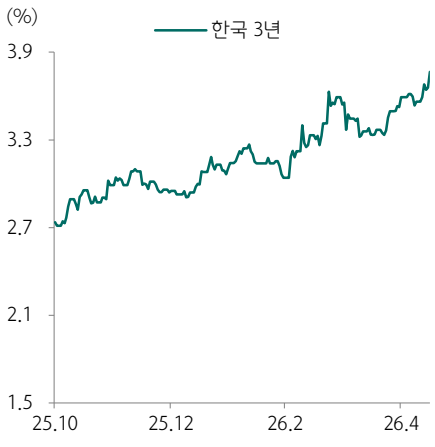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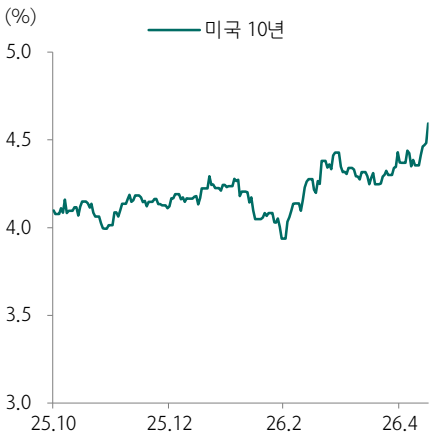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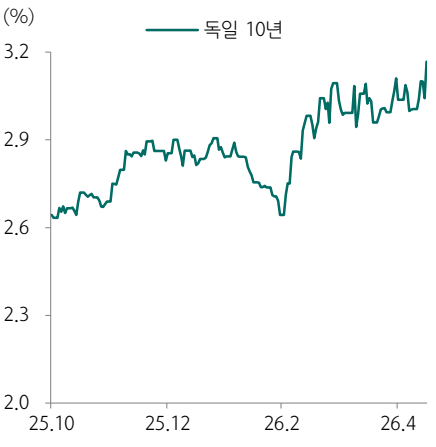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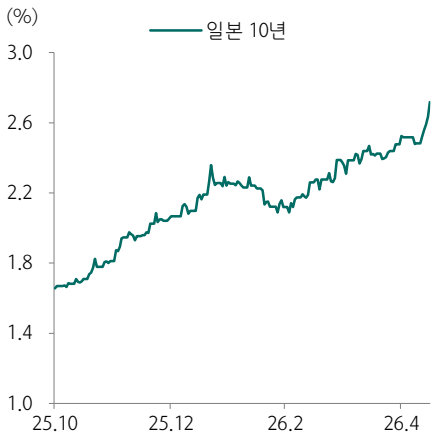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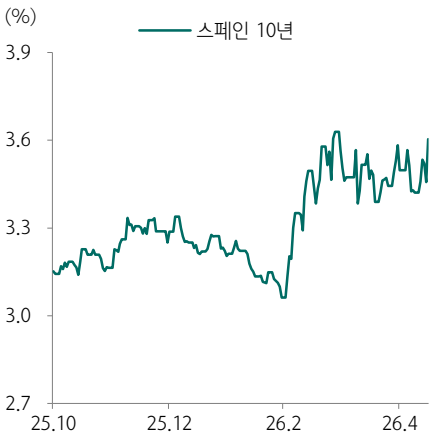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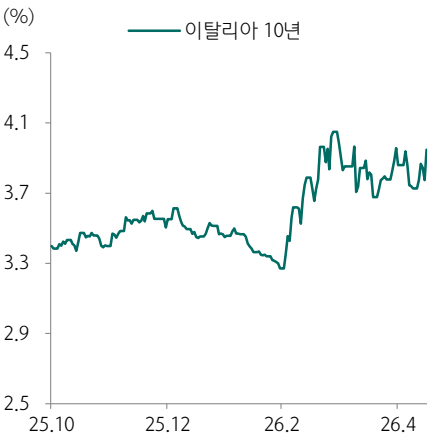

(%)
한국 3년
3.9
3.3
2.7
2.1
1.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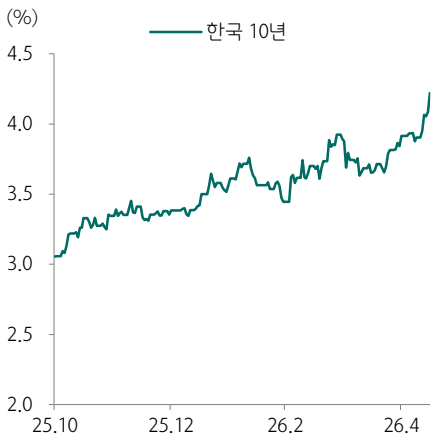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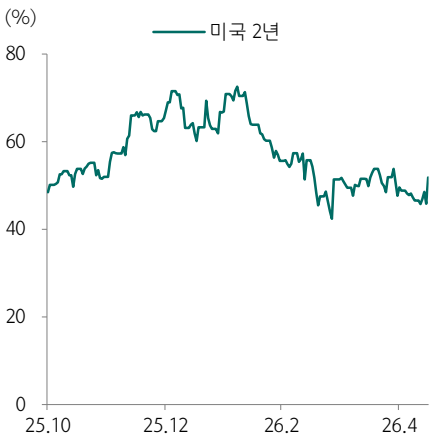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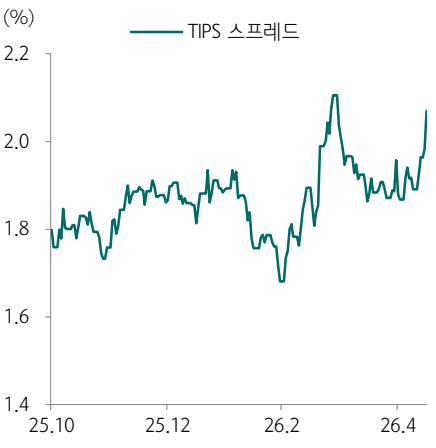

(%)
일본 10년
3.0
2.6
2.2
1.8
1.4
1.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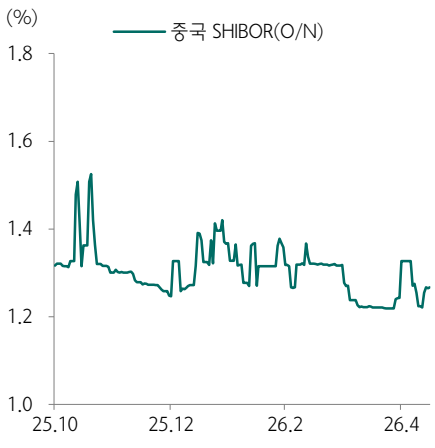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10
25.12
26.2
26.4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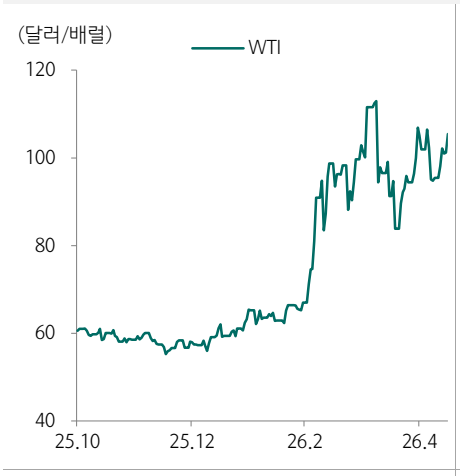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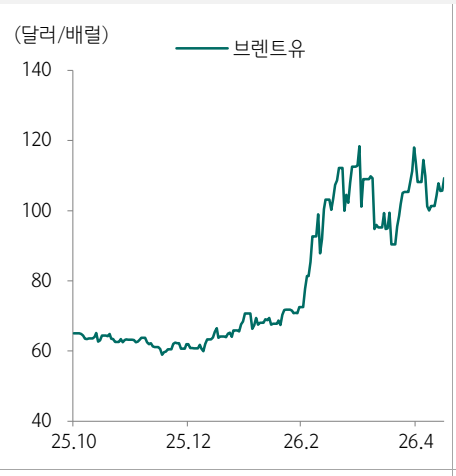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10
25.12
26.2
26.4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10
25.12
26.2
26.4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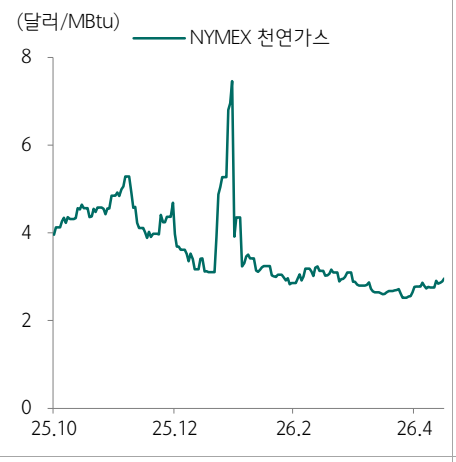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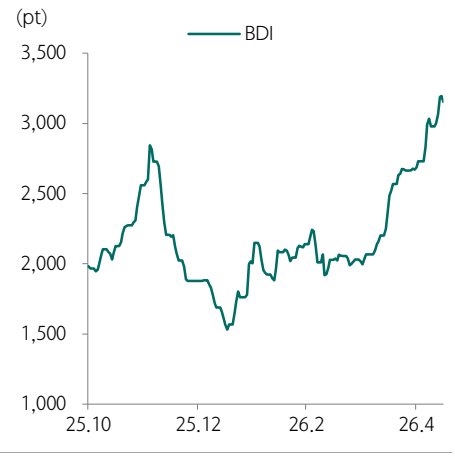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두바이유
130
100
7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450
380
310
240
170
1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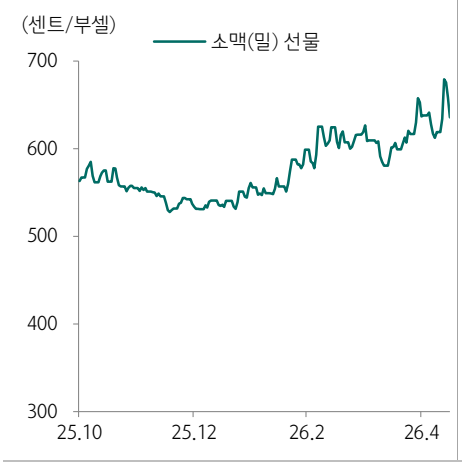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10
25.12
26.2
26.4


(pt)
BDI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5.10
25.12
26.2
26.4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10
25.12
26.2
26.4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10
25.12
26.2
26.4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500
480
460
440
420
400
25.10
25.12
26.2
26.4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5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